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자발적 고독’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된 심리학과 교수 ○○○입니다.

여러분, ‘TMI’나 ‘관태기’와 같은 신조어를 들어 보셨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네, 많이들 알고 있네요.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머리글자로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한 거부감을, ‘관태기’는 ‘관계 권태기’를 줄인 말로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에 대한 권태를 드러내는 말이지요. 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거나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자발적 고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발적 고독’은 타인에 의한 ‘고립’과는 구별됩니다. 남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립되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이는 불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오히려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 타인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멍하게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별다른 인지 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은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창의적 사고력이 증진되며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셈이지요. 또한 ‘유도된 상상’을 떠올리는 것도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 위해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여유롭게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숨 가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매끼니처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1인분의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내용은 제 SNS에 남겨 주세요.

1. 다음은 위 강연을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강연 계획이다. 강연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발적 고독’의 방법을 안내해야겠군.
- ②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신조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해야겠군.
- ③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 할 수 있으니 ‘자발적 고독’의 효과를 제시해야겠군.
- ④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과 타인에 의한 ‘고립’을 혼동할 수 있으니 그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군.
- ⑤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겠군.

2.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련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강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 ③ 강연 진행 순서를 처음에 안내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강연의 마무리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전체 강연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다음은 위 강연을 들은 청중들이 강연자의 SNS에 남긴 댓글이다. 강연 내용을 고려하여 청중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지] 강연 후기를 남겨 주세요.

심리학과 교수 ○○○

오늘 제 강연에 귀 기울여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중 1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겠어요.

청중 2

겨울 방학 때 여행 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렸던 이유가 ‘유도된 상상’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네요.

청중 3

저는 교수님께서 자발적 고독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채웠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청중 4

교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바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중 5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멍하게 있는 시간’이 창의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의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 ① ‘청중 1’은 강연 내용을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 ② ‘청중 2’는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③ ‘청중 3’은 비판적 태도로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청중 4’는 강연자의 의도를 확인한 후 강연자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 ⑤ ‘청중 5’는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며 강연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4~7] (가)는 학생회에서 개최할 ‘나눔 장터’ 행사의 홍보를 위한 토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학생 1:** 자, 먼저 홍보용 안내 게시물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지부터 말해 보자. 내 생각에는 학생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나눔 장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 학생 2:** 잠깐. ㉠ 게시물의 형식부터 먼저 결정하면 게시물에 들어갈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
- 학생 3:** ‘밤샘 독서’ 행사 때에도 오랫동안 토의하면서 게시물 내용을 정했지만, 그 형식이 뒤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내용 선정 토의를 다시 해야 했잖아?
- 학생 1:** 그랬었지. 그럼 이번 안내 게시물은 광고 포스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개최 시기나 장소 등과 같이 ‘나눔 장터’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포스터 형식이 좋을 것 같아. [A]
- 학생 3:** 그것도 좋지만, 작년에 행사가 끝난 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행사의 취지와 참가 방법을 몰라 참여를 못 했다는 의견이 많았잖아?
- 학생 2:** ㉡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
- 학생 1:** 그럼 행사 취지와 물품 판매 방법 등은 안내 글 형식으로 설명하고, 그 옆에는 ‘나눔 장터’의 개최 시기와 장소와 같은 행사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함께 게시하는 것은 어떨까?
-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럼 안내 글은 내가 작성할게. 작년 행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설문 자료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 학생 1:** 그럼 안내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말해 보자. 행사 제목은 그대로 해도 괜찮겠지?
- 학생 3:** 작년 행사 제목은 너무 식상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학교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목이나 교화를 활용하자. 둘 중 어느 것이 좋을까?
- 학생 2:** ㉢ ‘나눔 장터’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교화보다는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교목인 느티나무를 활용하자. 그리고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행사의 의의를 소개하는 문구도 넣자.
- 학생 3:** 좋아. 그리고 포스터만 봐도 ‘나눔 장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포스터 중앙에는 행사 진행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어때? [B]
- 학생 2:** 그래. 그리고 그림 우측에는 ‘나눔 장터’의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좌측에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학생 1:** 포스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행사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 학생 3:** ㉣ 그럼 그림의 양쪽에 제시할 정보는 일부 내용만 선별해서 제공하도록 하자.
- 학생 2:**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는 작년 설문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그림 아래에 행사 참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어때?

학생 3: 그게 좋겠다. 그리고 ㉤ 이번 ‘나눔 장터’를 준비하는데 후원을 해 준 단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그 단체들의 이름을 제시하는 건 어때?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럼 포스터 제작과 관련된 일정은 다음에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나)

한 번만 읽고 책장에 꽂아 놓은 책, 책상 서랍에 방치된 장난감이나 문구류. 나에게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 ‘나눔 장터’는 이처럼 자신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남들에게는 쓸모 있는 물건을 행사 참여자들이 직접 사고팔아 재사용을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또 행사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에도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물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나눔 장터’ 게시판에 의류 및 문구류, 도서류와 같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판매 가격, 물품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 동·식물, 고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전자 제품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 수량과 판매 물품의 가격은 판매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구름다리 미술 전시회, 먹거리 시장, 체험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나눔 장터’에서 모은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므로, 판매 수익금은 기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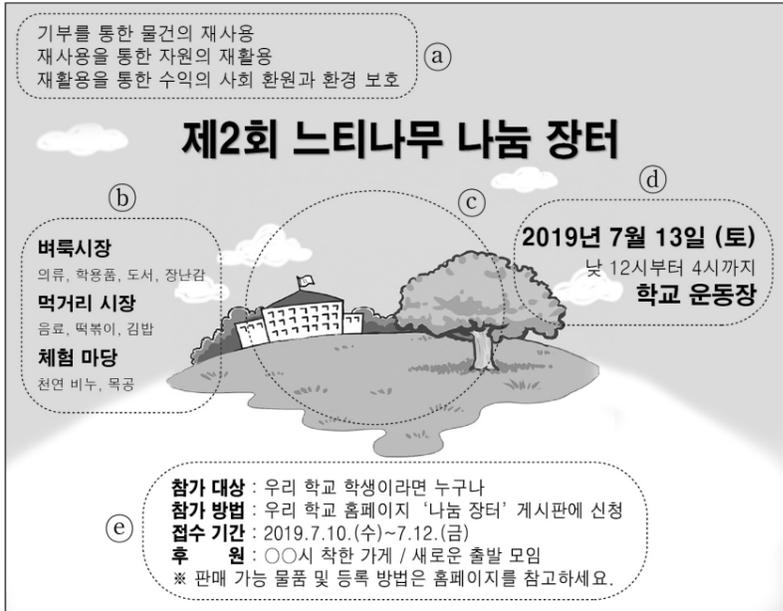
4.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 제안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토의 안건의 논의 순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② ㉡: 설문 결과를 근거로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을 채택하자는 상대의 의견과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발화이다.
- ③ ㉢: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가 발언한 제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발화이다.
- ④ ㉣: 포스터를 제작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전달할 정보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화이다.
- ⑤ ㉤: 행사에 도움을 준 단체를 밝히자는 자신의 제안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발화이다.

5. [A], [B]의 답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2’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의견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3’이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3’이 ‘학생 2’가 제시한 의견들을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포스터’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나눔 장터’ 행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대구법과 연쇄법을 활용한 문구를 제시하였군.
- ② ㉡를 보니 학생들이 ‘나눔 장터’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항목화하여 나타내었군.
- ③ ㉢를 보니 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눔 장터’의 개최 시기와 목적이 드러나는 그림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겠군.
- ④ ㉣를 보니 포스터에 실릴 정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행사 일시와 장소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록하였군.
- ⑤ ㉣를 보니 작년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고려하여 행사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였군.

7. <보기>는 ‘학생 3’이 (나)를 쓰면서 활용한 질문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구매한 꽃이 금방 시드는 바람에 판매자와 언쟁을 벌인 경우가 있었음.
-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술 전시회나 체험 마당에 참여한 학생이 적었음.
-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알지 못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은 판매자도 다수 있었음.
- 많은 학생들이 행사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 방법을 알지 못해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① 판매 수익금의 기부를 권장하기 위해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제시하였다.
- ②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의 종류를 안내하였다.
- ③ 행사의 취지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나눔 장터’의 개념과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 ④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나눔 장터’ 행사 때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⑤ 물품 판매 방법을 몰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판매 물품을 등록하는 방법과 참가 자격을 안내하였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동아리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 작성
- **예상 독자** : 동아리 업무 담당 교사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발명 동아리 ‘사고몽치’의 부장을 맡고 있는 문호영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항상 마음 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점이 없어 불편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저희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미니 자판기를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일 기억하시지요? 이처럼 저희 동아리는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아리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무한 상상실’과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한 상상실이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기기나 공작 도구가 마련된 공간을 말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무한 상상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고안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제품을 만들 때마다 인근 대학교의 무한 상상실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시설을 예약하는 것이 어렵고, 이용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이 설치된다면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동아리 학생들도 이 공간에서 다양한 제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두 번째, 발명에서 특허 출원까지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동아리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열심히 만든 발명품들을 상품화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를 도와줄 전문가가 있다면 발명품의 완성도도 높이고, 발명가라는 꿈에 다가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8. [A]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물음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 내용의 실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9.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가) 통계 자료

1. ○○광역시 소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율 (단위: %)

연도	설치율 (%)
2016년	1.2
2017년	5.1
2018년	10.3

2.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복 응답, 단위: %)

이유	응답률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 부족	45.7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부족	40.5
활동 예산 지원 부족	28.4
동아리 신설 제약	15.2
기타	7.0

(나) 신문 기사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 제작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하는데, 최근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이커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교육정책관 ◇◇◇은 미국, 중국 등은 이미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이 진로·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미래 메이커 양성을 위해 발명 및 특허 과정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 인터뷰

발명 활동을 통해 제가 생각해 낸 작품을 제작하며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한 상상실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며 디지털 제작 도구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다른 학생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 주는 발명품을 만들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고 발명 동아리 부장 학생

- ① (가)-1을 활용하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 주어 우리 학교에도 무한 상상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② (가)-2를 활용하여,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의 부족이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임을 밝히고, 발명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발명품 제작 활동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명 동아리에 대한 지원 확대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임을 언급해야겠어.
- ④ (가)-2와 (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익혀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발명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부각해야겠어.

10.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A]에 제시된 건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고, 건의 주체와 관련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낼 것.

- ① 발명 활동을 통해 창의적 상상력의 싹을 틔우고 특허 출원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② 우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을 설치한다면,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미래의 발명가를 양성해 나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③ 다양한 창작과 공작이 가능한 공간에서의 활동은 저희들의 아이디어에 현실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전문가를 통한 배움은 발명에 대한 흥미와 잠재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 ④ 무한 상상실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발명품을 제작하며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를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끈기와 소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⑤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11.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담장이 낮다. → 동네 사람들이 담장을 낮춘다.
- ㉡ 아이가 옷을 입었다. →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었다.
- ㉢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
-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 읽게 하셨다].
- ㉤ [아기가 웃는다. → 아빠가 아기를 웃긴다. / 철수가 짐을 졌다. → 형이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

- ① ㉠: 형용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되었군.
- ② ㉡: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는군.
- ③ ㉣: 사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군.
- ④ ㉤: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의 의미로,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는군.
- ⑤ ㉤: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군.

12.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에서 ‘ㄴ’과 ‘ㄹ’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ㄹ’과 ‘ㄴ’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ㄴ’과 ‘ㄹ’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산란기 | 표현력 |
| ② 줄넘기 | 입원료 |
| ③ 결단력 | 생산량 |
| ④ 의견란 | 향신료 |
| ⑤ 대관령 | 물난리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씻다’처럼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쓰다’처럼 활용할 때 기본 형태가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반면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불규칙적으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신다’와 같은 ‘ㄷ’ 불규칙, ‘젓다’와 같은 ‘ㅅ’ 불규칙, ‘돕다’와 같은 ‘ㅂ’ 불규칙, ‘푸다’와 같은 ‘우’ 불규칙처럼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하다’와 같은 ‘여’ 불규칙처럼 어미가 바뀌는 경우, ‘파랗다’와 같은 ‘ㅎ’ 불규칙처럼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중세 국어 용언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쁘다’가 ‘ㅼ’처럼 활용하는 ‘ㅍ’ 탈락이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ㅍ’ 탈락에 대응한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신다’의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실-’로 교체되는 현상은 현대 국어의 ‘ㄷ’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돕다’와 ‘젓다’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뉘-’와 ‘젓-’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교체는 ‘빙’이 ‘ㅍ’ 또는 ‘ㅅ’ 앞에서 반모음 ‘ㅇ/ㅁ[w]’로 변화하거나 ‘ㅅ’ 또는 ‘ㅍ’와 결합하여 ‘ㅇ’ 또는 ‘ㅁ’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서 ‘ㅂ’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ㅅ’은 소실되어 현대 국어에서 ‘ㅅ’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간이거나 어간의 일부인 ‘ㅎ-’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가 ‘-아’가 아닌 ‘-야’로 나타나는 것은 현대 국어의 ‘여’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13.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용언의 활용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탐구 과제]
다음 자료를 보고, 용언의 활용 양상을 탐구해 보자.

[탐구 자료]
따르다 : 따르- + -고 → 따르고 / 따르- + -어 → 따라
푸르다 : 푸르- + -고 → 푸르고 / 푸르- + -어 → 푸르려
묻다[問] : 묻- + -고 → 묻고 / 묻- + -어 → 물어
묻다[埋] : 묻- + -고 → 묻고 / 묻- + -어 → 묻어

[탐구 결과]
‘따르다’는 (㉠)처럼 ‘ㄷ’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하는 반면, ‘푸르다’는 (㉡)에서 ‘따르다’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또한 ‘묻다[問]’는 (㉢)에서 ‘묻다[埋]’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 | | | |
|--------|----|----|
| ㉠ | ㉡ | ㉢ |
| ① 잠그다 | 어간 | 어미 |
| ② 다다르다 | 어간 | 어미 |
| ③ 부르다 | 어미 | 어간 |
| ④ 들르다 | 어미 | 어간 |
| ⑤ 머무르다 | 어미 | 어간 |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중세 국어	(나) 현대 국어
○ 부텃 德을 놀애 지서	부처의 덕(德)을 노래로 지어
○ 人生 즐거븐 쁘디	인생(人生) 즐거운 뜻이
○ 一方이 변ᄃ야	일방(一方)이 변하여

- ① (가)의 ‘지서’는 ‘젓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짚-’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즐거븐’은 ‘즐겁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즐겅-’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의 ‘지서’가 (나)에서 ‘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이 소실된 결과이군.
- ④ (가)의 ‘즐거븐’이 (나)에서 ‘즐거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탈락한 결과이군.
- ⑤ (가)의 ‘변ᄃ야’와 (나)의 ‘변하여’는 모두 활용을 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이군.

15.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한⁰¹ ㉠

①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②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③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④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한⁰² ㉡

① (‘-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는 한이 있어도’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무릅써야 할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
 ②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

<보기 2>

결승점을 ㉠한 200미터 앞두고 달리고 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며 훈련했던 동료 선수들의 응원 속에 나는 온 힘을 다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힘이 남아 있는 ㉤한 포기는 하지 말라고 외치던 ㉥한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힘을 낸다.

- ① ㉠은 ‘한⁰¹④’의 뜻으로, ㉡은 ‘한⁰¹③’의 뜻으로 쓰였겠군.
- ②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과 ㉡의 품사는 모두 관형사이겠군.
- ③ ㉡과 ㉣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④ ㉢의 ‘한’은 ‘한⁰¹①’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걸음’으로 띄어 써야겠군.
- ⑤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의 ‘한’은 ㉤과 같은 의미로 쓰였겠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유 자금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이 필수적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표시한 재무 보고서를 말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활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의 기업의 수익 규모와 수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제시된 포괄손익

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인 자본*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산은 현금과 토지, 건물 등과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부채란 갚아야 할 돈으로 흔히 말하는 빚이다. 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자본 거래 및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여 축적된 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자산을 활용해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 전부를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다.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은 숫자 그 자체보다는, 다른 숫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는 기간별로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표시된 숫자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을 해야 한다. 재무비율 분석 중 널리 쓰이는 비율로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화학 기업인 듀폰은 자기자본순이익률을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듀폰 ROE 분해’를 창안했다. 듀폰 ROE 분해에 따르면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자산회전을 그리고 재무레버리지를 곱한 값과도 같으므로 이 세 가지로 분해하여 각각의 재무비율을 파악하면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듀폰 ROE 분해 중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익성 지표이다. 만약 1,0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을 다 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120만 원이라면 매출액순이익률은 12%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한 회계 기간 동안의 매출액 중 당기순이익의 비중을 보여 주어서 산업별 평균값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듀폰 ROE 분해 중 ‘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산의 효율성 지표이다. 자산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 A와 B 모두 매출액이 1,000만 원이고 A와 B의 평균총자산이 각각 1,00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 B는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A는 B의 2.5배인 1,000만 원이다. 따라서 A와 B의 자산회전율은 각각 1과 2.5로 B가 A에 비해 자산의 이용이 2.5배 효율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듀폰 ROE 분해 중 재무레버리지는 평균총자산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안정성 지표이다.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지면 기업의 안정성은 낮아진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무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그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상승한 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높은 재무레버리지에 의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레버리지를 산업별 평균값 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A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10이고 자산회전율(회)이 2, 재무레버리지가 2라고 한다면 A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40%(10×2×2)가 된다. 따라서 듀퐁 ROE 분해는 다른 기업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비교하거나 각 기업을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재무비율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자본: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만의 자산, 즉 순자산을 회계 용어로 자본이라고 부르며, 타인자본인 부채와 구분하여 자기자본이라고도 함.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무제표의 개념을 제시한 후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②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 원칙을 밝히고, 재무비율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듀퐁사가 ROE 분해를 창안한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재무비율 분석의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 ④ 듀퐁 ROE 분해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무비율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재무제표를 투자의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②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하면 그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듀퐁 ROE 분해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안정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보면 그 기업의 안정성 지표를 알 수 있다.
- ⑤ 기업의 자산회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재무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총자산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② 부채가 일정할 경우 평균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③ 평균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 ④ 평균자기자본이 일정할 경우 재무레버리지가 낮아지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진다.
- ⑤ 평균총자산이 일정할 경우 평균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재무레버리지가 높아진다.

<19~20> <보기>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단위: 억 원)

구분	과목	A기업	B기업	
		2018년	2017년	2018년
재무상태표	평균총자산	200	100	200
	부채	100	50	150
	평균자기자본	100	50	50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	500	100	400
	당기순이익	20	10	20
매출액순이익률 (%)		㉠	10	5
자산회전율(회)		㉡	1	2
재무레버리지		㉢	2	4
자기자본순이익률 (%)		㉣	20	40

※ 회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고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임.
 ※ 재무제표 수치 이외에 어떤 외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음.

19. 다음은 A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회의 기록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 과장: ㉠에 해당하는 값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므로 4%입니다. ①

최 대리: ㉠에 해당하는 값이 2018년의 B기업보다 낮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매출액이 B기업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②

민 부장: ㉡에 해당하는 값을 보면, 2018년의 우리 기업은 2018년의 B기업보다 자산이 2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박 사원: ㉢에 해당하는 값은 2로, 2018년의 B기업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산업별 평균값이나 다른 기업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④

정 사장: 2018년 재무제표를 보니, 우리 기업의 ㉣에 해당하는 값은 2017년의 B기업과 같군요. ⑤

20.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2018년의 B기업은 2017년에 비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을 전부 차감한 금액이 감소하였다.
- ② 2018년의 B기업은 2017년에 비해 주주가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 ③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안정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다.
- ④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수익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 ⑤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자산의 효율적 이용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에는 B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키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기에 난로에 싱싱한 물푸레
 갈이 지피고 등피(燈皮)* 호 호 닦아 끼우어 심지 튀기니 불꽃
 이 새록 돋다 미리 떼고 걸고 보니 켈런더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다 이제 차츰 밟고 넘을 다람쥐 등술기같이 구브레 번어 나
 갈 연봉(連峯)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초침 소리
 유달리 똑닥거리는 낙엽 벗은 산장 밤 ㉠창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뉘니 후 두 두 두 낙수(落水) 짓는 소리 크기 손바닥만한 어
 인 나비가 따악 붙어 들여다본다 가엾어라 열리지 않는 창 주
 먹 쥐어 징징 치니 날을 기식(氣息)도 없이 네 벽이 도로혀 날
 개와 떠다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幻
 想) 호흡하노라 서둘러 붙어 있는 이 자재화(自在畵)* 한 폭은
 활 활 불피워 담기어 있는 이상스런 계절이 몹시 부러웁다 날
 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앓을까 무서워라
 구름이 다시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별도 휩쓸려 내려가 산
 아래 어느 마을 위에 총총하노 백화(白樺) 숲 희부영게 어정거
 리는 절정(絶頂)*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 정지용, 「나비」

* 등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남포등에 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

* 자재화: 자, 컴퍼스 따위를 쓰지 않고 연필이나 붓만으로 그린 그림.

* 절정: 산꼭대기.

(나)

겨울 아침, ㉡유리창 가득 반짝이는
 성예를 본다. 유리창에 만발한 하얀 식물,
 꽃과 잎과 줄기를 본다. [A]

무엇일까,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섬세한 꽃과 잎의 무늬 안에 가두어놓은 힘은. [A]

결빙의 힘 속에
 식물의 본능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땅 속에서 물을 퍼올려
 잎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 [B]

모든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드는
 서슬 푸른 법(法)과 도(道)의 세계가
 결빙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일까. [B]

이 화려한 무늬를 들여다보면
 막 열기 시작한 물이
 결빙의 칼날과 환희를 견디다가
 절정의 순간 얼음의 결정체마다 살라놓은
 투명한 불의 흔적이 보인다. [C]

겨울 아침, 하얀 식물 성예를 보며
 문득 지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린다.
 푸른 얼음 속에 울창하게 퍼져 있는
 또다른 원시림을 본다. [D]

청정한 법(法)과 도(道)가
 열대의 온갖 동식물처럼
 뿌리내리고 자라 넘실거리는,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을 본다.

[E]

- 김기택, 「얼음 속의 밀림」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로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비」는 일제 강점 말기에 쓰인 작품으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시인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렇게 조우하게 된 자신의 내면을 비유적 대상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늦가을, 높은 산속에 실재하기 어려운 '나비'는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존재로서 화자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 준다.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심정, 억압적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응시하는 성찰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 ① '초침소리 유달리 똑닥거'린다고 느낄 만큼 적막감이 감도는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시적 배경이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낙수 짓는' 창밖에 붙어 있는 나비를 '가엾'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했던 화자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나비에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이나 '자재화 한 폭'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창밖 나비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 낸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④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기며 ‘부러’워하는 창밖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모습은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성찰적 자세에 해당하겠군.
- ⑤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인 별도 ‘휩쓸려 내려’갔다는 표현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겠군.

23.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성애’의 모습에서 ‘하얀 식물’의 모습을 유추해 내고 있다.
- ② [B]: ‘결빙의 힘’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여 ‘결빙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과 저항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C]: 대상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물의 결빙이 만들어 낸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해 내고 있다.
- ④ [D]: 하나의 대상에서 찾아낸 속성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성애’에서 ‘원시림’으로 연결되는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⑤ [E]: 정적 대상을 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애’에서 찾아낸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2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안과 밖의 두 공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자각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투영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계모 노 씨와 친척 노태의 모해(謀害)로 인해 첫날밤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유춘연은 적삼에 혈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유 승상은 딸 춘연의 혈서를 읽은 후 노 씨의 시비를 심문한다.

승상이 시비가 죄상을 털어놓지 않음에 노하여 형벌(刑罰)로 추문하더니, 홀연 공중으로서 외쳐 왈,
“부친은 애매한 시비를 엄형(嚴刑)치 마르소서. 소녀의 애매한 누명을 자연 알리이다.”

하더니, 홀연 방안에 앉았던 노 씨 문 밖에 나와 엎어지며 안개 자욱하고 무삼 소리 나더니 노 씨 피를 무수히 토하고 죽는 지라. 모두 이르되,

“불측한 행실을 하다가 이렇듯 죽으니, 신명이 무심치 아니타.” 하고,

“불쌍한 소저는 이팔청춘에 몹쓸 악명을 쓰고 죽으니 철천(徹天)한 원한을 뉘라서 씻으리오?”

노태는 그 경상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노 씨 자녀는 그날부터 말도 못 하고 세상일을 버렸더라.

(중략)

익일에 유모를 따라 한가지로 소저의 빈소에 이르러는 유모가 먼저 들어가 이르되,

“소저야, 정 시랑 상공이 오셨나이다.”

소저가 대 왈,

㉠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뇨?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니라.”

유모가 다시 이르되,

“내 어찌 소저에게 허언을 하리잇고? 지금 밖에 오신 상공이 곧 정 시랑이시니 들어오시라 하리잇가?”

소저가 이르되, / “정 시랑이신지 분명히 옳으냐?”

유모 왈, / “어찌 거짓말을 하리잇고?”

하고 나와 이대로 고한대, 어사가 친히 문 밖에서 소리하여 왈,
“생이 곧 정을선이니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듯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그 외 다른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잇고. 을선이 곧 황명(皇命)을 받자와 이곳에 와서 부인의 애매함을 깨닫사오니, 백골이나 보고 이곳에서 한가지로 죽어 부인의 각골지원(刻骨之冤)을 위로코자 하나니, 부인의 명백한 혼령은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赦)하시면 잠깐 뵈옵고 위로함을 바라나이다.”

말 끝에 크게 우니,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정 시랑이 이곳에 오시기 만무하니 어디서 과객이 와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몸을 이렇듯 조르나뇨? 부질없이 조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는 소리가 애절(哀切)하여 원근에 사무치는지라. 유모가 수차 타이르되, 듣지 않으니, 시랑이 유모를 대하여 왈,

“내가 이렇듯 말하되 소저 듣지 아니하니 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리라.” / 유모가 말려 왈,

㉡ “그러하면 좋지 아님이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어사가 생각하되, ‘이는 철천지원(徹天之冤)이니 범연히 보지 못하리라’하고, 황급히 생각하고 즉시 익주자사에게 판자(關子)*하되,

‘익주 순무어사(巡撫御使) 정을선은 자사에게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수일 내로 유 승상 부중(府中) 녹림원상(綠林苑上)으로 대령하라.’

하니, 익주자사가 관자를 보고 황황히 예를 갖추어 녹림원상으로 오니, 어사가 그늘에 앉아 민간(民間) 사정을 묻고 왈,
 “내 전일에 유 승상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더니 마침 이리 지나다가 유모를 만나 그동안 사연을 자세히 들으니, 그 소저가 별세한 지 삼 년이로되 이리이리하오니 어찌 가련치 않으리오? 이러므로 그 원혼을 위로코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
 자사가 듣기를 다 마치매 소저 빈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길,
 “이는 곧 정 상공일시 분명하고 나는 이 고을 자사옵더니, 정 어사의 분부를 들어 아뢰옵나니 존위(尊威)하신 신령은 살피소서.”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왈,
 “아무리 유명(幽明)이 다르나 남녀 분명하거늘 어찌 외인(外人)을 만나리오? 아무리 분명한 정 사랑이라 하되 내 어찌 곧이 들으리오?”
 어사가 하릴없이 이 연유를 천자에게 주(奏)한대, 상이 들으시고 애처롭게 여기서 원혼에게 벼슬을 하사하여 충렬부인을 봉하시고 직첩과 교지(教旨)*를 내리시니, 언관(言官)이 밤낮으로 내려와 소저 빈소 방문 앞에서 교지를 자세히 읽으니,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아비를 모르고 남군을 모르리오? 교지를 내려 너의 원혼을 깨닫게 하노라. 정을선의 상소를 보니 너의 참혹한 말을 어찌 다 헤아리리오? ㉠ 너를 위하여 조서(詔書)를 내리나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하였더라. 소저가 듣기를 다하매 그제야 유모를 불러 왈,
 “천은이 망극하사 아녀자의 혼백을 위로하시고 또 가부(家夫)가 틀림없는 줄을 밝히시니 황은이 태산 같도다.”
 인하여 사랑을 청하여 들어오라 하거늘, 어사가 유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 좌우 창호(窓戶)가 겹겹이 닫혔거늘, 어사가 좌우로 살피나 티끌이 자욱하여 인귀(人鬼)를 분변치 못할지라. 마음에 비창(悲愴)하여 이불을 들고 보니 비록 살은 썩지 아녘으나 시신이 뼈만 남은지라. 어사가 울며 왈,
 “낭자야, 나를 보면 능히 알소냐?”
 그 소저가 공중으로서 대답하되,
 “첩의 용납지 못할 죄를 사하시고 천 리 원정에 오시니 아무리 백골인들 어찌 감격치 않으리오? 첩이 박명한 죄인으로 상공의 하해 같은 인덕을 입사와 외람하온 직첩을 받자오니 어찌 감은치 않으리잇가?”
 어사 왈, / “어찌하면 낭자가 다시 살아날꼬?”
 소저가 답 왈,
 ㉢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륜동을 찾아가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회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가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잇고?”
 어사가 기뻐 즉시 유모를 분부하여 ‘행장을 차리라’하여, 유모 부처(夫妻)를 데리고 길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옥륜동에 이르러 기험(崎險)한 산천을 넘어 도관(道觀)을 찾으되, 운무가 자욱하여 능히 찾을 길이 없는지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관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
 * 교지: 임명,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임금의 명령.

2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을선은 춘연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춘연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 ② 정을선은 자사를 불러 춘연의 원한에 얽힌 사연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 ③ 승상은 노 씨의 시비를 통해 딸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된다.
- ④ 춘연은 황명을 이유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려 온 정을선을 모른 척하고 있다.
- ⑤ 유모는 춘연의 빈소 앞에서 교지를 읽어 춘연이 충렬부인으로 봉해졌음을 알리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유모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며 정을선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③ ㉢: 천자의 권위를 내세워 춘연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 ④ ㉣: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정을선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⑤ ㉣: 구체적 지명과 인물을 언급하며 정을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과 같은 여성 원귀(冤鬼) 소설에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귀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해원(解冤)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후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환생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 ① 춘연이 원귀가 되어 노 씨를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만든 것은 춘연이 자신을 해한 사람에게 복수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춘연이 원귀가 된 사연을 알게 된 후에 정을선은 춘연의 억울함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군.
- ③ 춘연이 자사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군.
- ④ 춘연이 직첩과 교지를 받고서야 정을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자의 인정으로 춘연의 억울함이 풀렸음을 드러내는군.
- ⑤ 정을선이 춘연을 위해 약을 찾아 옥륜동에 가는 것은 춘연의 환생을 위한 조력자의 노력에 해당하는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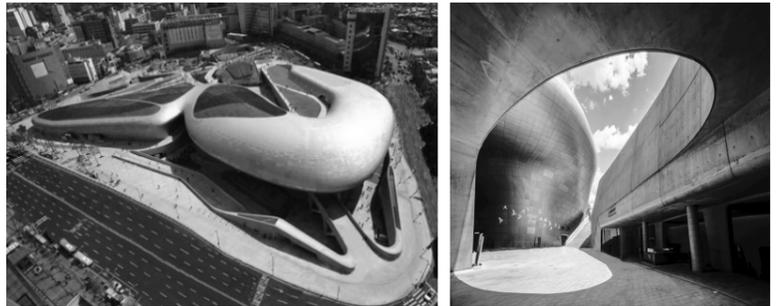
㉠ 근대 철학에서는 대상이 지닌 고정된 진리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동일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동일성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 즉 얼마나 유사하게 동일성을 재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 들뢰즈는 표상이 대상들이 지닌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들뢰즈는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관계 맺으며 펼쳐지는 무수한 차이를 긍정하며 세계를 생성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란 두 대상을 정태적으로 비교해서 ㉢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이 만나고 섞임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A)’과 ‘자동차(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원래 땅 위를 달리며, 달리기와 관련된 근육이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A가 달리기 대신 B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A는 달리는 근육 대신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는 근육이 발달할 것이다. A는 땅과 자동차 중 어느 것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이전의 A와는 다른 차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A에게 ‘자동차 운전을 잘하게 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성’이다.

또한 들뢰즈는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생성의 과정을 주름 개념으로 설명한다. 새로 산 옷을 입으면, 이 옷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주름이 ㉣ 생긴다. 이 주름은 옷 자체 혹은 외부로부터 받은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 결국 주름은 대상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 혹은 차이를 지닌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생성된 주름은 시간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다시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은 처음과는 차이가 나는 새로운 주름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간다. 따라서 주름에는 시간적 개념과 변형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들뢰즈가 제안한 ‘주름’ 개념은 현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현대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은 대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 건물의 내부와 외부로 각각의 고정된 의미로 분리하여 바라보려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을 거부하고 이들을 하나의 주름 잡힌 표면, 즉 서로 관계 맺으며 접고 펼쳐지는 반복적 과정 속에서 생성된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건축에서는 대지와 건물이 인간에 의해 그 역할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되었었는데, 현대 건축에서는 대지와 건물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작동한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나타나는 연속된 표면은 대지와 건물의 벽, 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생성하면서 대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통합되기도 하고, 건물 자체가 대지를 완전히 ㉤ 덮어서 대지와 건물이 통합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속된 표면은 주름처럼 접히고 펼쳐지면서 공간을 ㉥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공간은 그 성격이 고정되지 않고 유연적인 상황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의 전개로 인해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흐름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의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과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응시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우리나라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이러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건물이다. DDP의 표면은 주름진 곡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 내려다 보면 건물 전체가 대지를 덮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다. 또한 주름진 곡선에 의해 만들어진 내부의 공간들은 디자인 전시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패션 행사나 다양한 체험 마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특히 DDP는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이 건물의 지하 광장과 건물의 입구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졌으며, DDP 외부의 공원과 건물 간의 경계가 없어 공원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물의 내부로 이어지고, 내부에서 옥상의 잔디 언덕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다시 건물 밖의 공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DDP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과 통합을 추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간적 개념에서, ㉡은 시간적 개념에서 대상의 생성을 언급하였다.
- ② ㉠은 대상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은 대상의 변화하는 속성에 주목하였다.
- ③ ㉠은 어떤 대상과 관계하느냐에, ㉡은 대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주목하였다.
- ④ ㉠은 차이를 본질에 종속시키고자 하였고, ㉡은 동일성을 차이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 ⑤ ㉠과 ㉡의 목표는 모두 대상이 갖는 고정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29. 주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름은 내재적 원인에 의해 완성된다.
- ② 주름은 대상과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생성된다.
- ③ 생성된 주름은 다른 대상들과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 ④ 주름은 대상들 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 ⑤ 대상의 주름은 서로를 변화시키며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광필터를 통과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의 경우 대각(↗)·역대각(↖) 편광 특성도 지니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편광필터를 통과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 또한 수직·수평 편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수직이나 수평 편광으로 100% 측정되지만,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대각 혹은 역대각 편광으로 잘못 측정된다.

이러한 편광의 중첩 특성이 BB84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a) 송신자의 비트 정보	0	1	1	0	1	0
(b) 송신자의 편광필터	+	+	×	+	×	×
(c) 송신자의 편광 신호	↔	↓	↘	↔	↘	↗
(d) 수신자의 편광필터	+	+	×	×	+	×
(e) 수신자의 측정 신호	↔	×	↘	↗	↓	↗
(f) 비밀키 공유	0		1			0

* '×'는 누락된 광자.

BB84 프로토콜은 먼저 위 <표>의 (a)처럼 송신자가 무작위로 비트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BB84 프로토콜은 수직 편광과 역대각 편광은 '1'이라는 비트 정보로, 수평 편광과 대각 편광은 '0'이라는 비트 정보로 표시하기로 약속되어 있어 (b)처럼 송신자가 **+** 편광필터와 **×** 편광필터를 무작위로 선정하면 (c)와 같은 편광 신호들이 생성된다. 수신자는 (c)에서 생성된 편광 신호들이 어떤 편광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d)처럼 스스로 무작위로 편광필터를 선택하여 (e)와 같이 편광된 광자를 측정한다. 이때 전송 과정에서 잡음 등으로 인해 누락된 광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락된 광자는 측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송·수신자는 공개 채널에서 자신들이 어떤 편광필터를 어떤 순서로 사용했는지 서로 공유하면 (f)와 같이 동일한 편광필터를 사용한 '010'이라는 비트 정보만 걸러낼 수 있어 비밀키로 사용하는 측정값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

* 프로토콜: 통신 규약.

3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암호통신을 이용하여 온라인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 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①
○ 암호통신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명할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②
○ 암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은 복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암호통신 방식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각각의 암호통신 방식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3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개키 방식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하는 주체는 동일하겠군.
- ②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발전하더라도 양자암호통신은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겠군.
- ③ 양자암호통신에서는 도청자가 단일광자에 담긴 정보를 도청할 경우 수신자에게 도청 사실을 숨길 수 없겠군.
- ④ RSA 알고리즘에서 암호화된 문서가 전송 과정 중 유출되어도 수신자는 비밀키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겠군.
- ⑤ RSA 알고리즘이 대칭키 방식에 비해 암호·복호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서로 다른 암호·복호화 키를 주고받기 때문이겠군.

35. ㉠ ~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나 ㉢에 비해 비밀키가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 ② ㉢은 ㉠이나 ㉡에 비해 수학적 복잡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
- ③ ㉠과 ㉡은 ㉢과 달리 비밀키를 나누어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④ ㉠과 ㉢은 ㉡과 달리 암호화를 위해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아야 한다.
- ⑤ ㉠, ㉡, ㉢은 모두 암호통신 상대의 수만큼 비밀키가 필요하다.

36. BB84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B84 프로토콜은 안전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복호화를 하는 과정에 대한 통신 규약이다.
- ② BB84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수평 편광을 **×** 편광필터로 측정하면 수평 편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 ③ BB84 프로토콜 실행 과정에서 편광된 광자가 다시 편광필터를 통과하면 양자의 중첩 특성이 사라진다.
- ④ 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BB84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동안 단일광자 자체를 가로챌 수 없다.
- ⑤ BB84 프로토콜에서 수직 편광은 대각 편광의 특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0'이라는 비트 정보로 표현한다.

37. BB84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가 <보기>와 같이 정보를 주고받았다. [A]를 참고했을 때 <보기>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비밀키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송신자의 비트 정보 생성 및 편광된 광자 전송										
비트 정보	0	1	0	0	1	1	1	0	1	0
편광필터 정보	0	1	1	0	1	0	1	1	1	0
편광 신호	↔	↘	↗	↔	↘	↓	↘	↗	↘	↔
○ 수신자의 광자 측정										
편광필터 정보	1	1	0	1	1	0	0	1	1	1
측정한 신호	↘	↘	↓	↘	×	↓	↔	↗	↘	↗

* **+** 편광필터: 0, **×** 편광필터: 1, 누락된 광자: ×

- ① 1011 ② 1100 ③ 1101 ④ 11011 ⑤ 11101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5년 전 실종된 사진작가 유종열의 아내로부터 유작 사진전에 초대받은 '나'는 그가 남긴 사진들을 보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사진 찍기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좀처럼 다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지 못하고 몇 주일 몇 달을 고심만 하고 있었다.

갈수록 사진이 두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의 전쟁터 충격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도 모두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난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현장들과 맞서기엔 나의 카메라는 너무도 무력하단 말이요. 나의 카메라는 **번번이 그 대상의 시간을 정지시킬 뿐이었어요. 그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흐를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두꺼운 벽을 허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을 때 유 선생은 거의 탈진한 어조로 털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전쟁터의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진 일이 이토록 두려워진 건 내 사진기가 살아 있는 현실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느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력감을 느끼면 사진기를 버리면 그만인 게지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서운 힘으로 맞서 오거든요. 그 전쟁터의 참상들이, 그 얼굴들이 내게로 말이요. 내가 카메라를 버릴 수 없도록 순간순간 내게 맞서 오고 있어요……. 산이나 바다는 맞서오는 게 없지요. 그래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땐 자리를 비켜서 버릴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 고통인 게지요.**”

그의 카메라 앞에 시간의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현상들, 그러면서도 눈을 감고 돌아설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인간사의 모습들,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이자 절망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중략)

이게 도대체 어찌 된 노릇인가.

사진 속엔 분명히 유 선생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 담겨 있었다. 그것도 물론 옛날에 미리 찍어 둔 것이 아니었다. 해상 유랑선을 찾아 헤매던 마지막 취재 길에서 찍힌 모습이다. 모습이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사진의 화면은 사방이 바다다. 해무로 어슴푸레해진 바다 저편에 난민선으로 보이는 배가 한 척 떠 있고, 화면의 중간쯤엔 한 사내가 그 난민선을 향해 방금 작은 보트를 저어가는 중이다.

카메라의 초점은 바로 그 난민선을 향해 해무 속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사내에게 맞춰지고 있는데, 마치 그 바다의 안개 속으로 배를 숨겨 올라가고 있는 듯한 사내의 모습은 유 선생의 그것으로밖엔 읽힐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게 느껴져 온 예감이 그러했고, 여자가 부러 그것을 지니고 와서 내게 보여준 연유가 그러했다.

㉠ 나는 도시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여자는 그게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 사진은 내게 또 하나의 수수께끼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 혹시 유 선생의 모습이 아녘니까. 그것도 그 난민선을 찾아다니는 바다 위에서의…….”

나는 차라리 한 번 더 여자의 도움을 구하는 게 빠를 것 같았다. 그래 눈길을 여자 쪽으로 옮기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확인을 구한다.

“맞아요. 그건 유종열씨예요…….”

여자도 이제 대답을 굳이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유 선생님은 아직……?”

“아니 아직 살아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 / “그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간 거예요.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 나는 이제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린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물어나가야 할지 물음의 순서가 떠오르질 않는다.

여자는 그러나 이미 나의 혼란을 짐작하고 있었다. ㉢ 그녀는 마치 나의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만 조용히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다가 이윽고 그녀가 마지막 수수께끼의 열쇠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편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여자가 다시 손가방 속에서 웬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어 건네준다. 속 부피가 제법 두툼한 봉투다.

“여기 이런저런 내력들이 모두 설명되어 있어요. 몇 달 전에 뜻밖에 작업실로 온 건데요, 종열 씨가 마지막으로 얻어 탔던 배의 일본인 선장이 아까 보신 그 사진의 필름들과 함께 보내온 것이예요.”

(...)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예상치도 않게 우리는 다시 난민선 한 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먼 바다까지 나올 수 있었던 배이고 보니,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미구에 닿쳐올 참극의 규모도 그만큼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배였습니다.

유 선생은 제게 다시 요구를 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진 같은 건 **찍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의 운명이 너무도 분명하므로 이번만은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난민선까지 접근시켜 가서 가능한 구조를 베풀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전 다짐 같은 건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물론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 선생은 제게 마지막 요구를 해왔습니다. 배를 가까이 접근시킬 수 없다면, 자신이 난민선을 다녀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제게 보트를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물론 이번에도 **허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 선생의 신변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신변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유 선생의 행동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감이 좋을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극력 유 선생을 말렸지요. 그러나 유 선생의 결심은 이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 저는 결국 보트를 내렸고, 유 선생은 혼자 보트를 저어 난민선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는 한의 유 선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 추신: 참 여기 유 선생을 찍은 저의 사진도 한 장 보내드립니다. 유 선생께서 저의 배를 떠나 난민선을 향해 보트를 저어가실 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 이청준, 「시간의 문」

3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유종열'의 작업실을 찾아가 대화를 통해 그와의 오해를 풀고 있다.
- ② '여자'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여자'는 '유종열'의 생존 가능성을 묻는 '나'에게 그의 생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키고 있다.
- ④ '선장'은 '여자'가 '유종열'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묻고 있다.
- ⑤ '유종열'은 '나'가 겪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심리가 담겨져 있다.
- ② ㉡: 질문에 의도적으로 답을 회피하는 상대에 대한 반감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의 행동에 담긴 속뜻을 주관적으로 유추하고 있다.
- ④ ㉣: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물에게 닥칠 위험과 인물이 자초할 위험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 ⑤ ㉤: 인물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40. [편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자'에 대한 '유종열'의 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유종열'의 행적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여자'와 '유종열'의 재회가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이야기의 초점을 '여자'에서 '유종열'로 바꾸고 있다.
- ⑤ '유종열'의 실종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간의 문」은 사진작가 유종열이 추구했던 예술 세계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유종열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정지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사진 안에 담고자 했다. 대상을 찍는 것이 과거로 굳어진 시간을 단순히 현재화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진정한 예술 행위가 아니며, 미래와의 연관을 담아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유종열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열려 있는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사진을 찍지 못해 괴로워하고, 결국 자신이 찍고자 했던 사진 속에 피사체가 되어 찍힘으로써 그가 추구한 예술의 본질과 예술가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게 된다.

- ① 유종열이 '좀처럼 다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진이 단순히 과거의 순간을 현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② 유종열이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흐'르려고 한 것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③ 유종열이 '전장터의 참상들'이 '무서운 힘으로 맞서 오'는데도 '카메라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열려 있는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겠군.
- ④ 유종열이 배에서 '사진 같은 건 찍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가 추구한 예술 세계가 사진 찍기로 인해 무너져 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괴로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유종열이 '난민선을 향해 보트를 저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피사체가 되어 찍힌 사진에는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가로서의 소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제 밤 부든 바람 금성(金聲)이 완연(宛然)하다
 고침단금(孤枕單衾) 깊이 든 밤 상사몽(相思夢) 훌쩍 깨여
 ㉠ 죽창(竹窓)을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보니
 창창한 만리장공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_____ [A]
 천연한 이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심사도 창연(愴然)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_____ [B]
 정원에 부는 바람 이한(離恨)을 알리는 듯
 추국(秋菊)에 맺힌 이슬 별루(別淚)를 머금은 듯 _____ [C]
 실 같은 버들 남쪽 봄 피꼬리 이미 돌아가고 _____ [D]
 소월비파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 슬피운다
 임 여희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 _____ [E]

(중략)

지척 동방 천 리되어 바라보기 묘연(杳然)하고
 은하작교(銀河鵲橋) 끈쳤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 인정이 끈쳤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耳目)에 매여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천수만한(千愁萬恨) 가득한데 끝끝치 느끼워라
 하물며 이는 ㉢ 추풍(秋風) 별회(別懷)를 부쳐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시름이라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마는
 유유별한(悠悠別恨)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愁聲)이라
 아해야 술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_____ [E]

-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나)

넷 사름 이젿 사름 이목구비(耳目口鼻) ㄹ것마는
나 혼자 엇디 햏야 넷 사름을 그리논고
이제도 넷 사름 겨시니 그 내 벗인가 햏노라 <제1수>

청송(靑松)으로 울흘 삼고 ㉠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르고
초옥삼간(草屋三間)이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흉중(胸中)에 사념(邪念)이 업스니 그를 스랑햏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싱각고 브라보니
용추동(龍湫洞) 밧끼오 구름드리 우희로다
밤마다 외로운 쑤만 햏자 다녀 오노라 <제5수>

밧는 첩첩(疊疊)햏고 구름은 자자시니
고인(故人)의 집 땅이 브라도 불성업다
밧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 햏노라 <제7수>

㉡ 상산(商山)의 영지(靈芝) 캐러 구태여 넷이 가리런가
쫓츠 리 업스디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世上)의 어즈러운 일들 듯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 정훈, 「월곡답가(月谷答歌)」

4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게 혐모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가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화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입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 ② ㉡: 돌아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다.
- ③ ㉠: 입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이다.
- ④ ㉡: 화자와 입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 ⑤ ㉡: 화자가 연모하는 입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44.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B]: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C]: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D]: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E]: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도(友道)’란 벗을 사귀는 데 중요한 덕목으로, 사대부 시가에서 ‘우도’는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이나 풍류와 은거 등의 친자연적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곡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왜적에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고, 전란 후에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초야에 은둔했던 삶을 살았다. 작가는 ‘우도’를 통해 월곡을 추모하며 충의를 중시했던 월곡의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제4수>에서 작가는 ‘초옥삼간’에서 ‘사념’이 없이 살고 있는 벗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벗이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제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름드리’ 위를 ‘쑤’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벗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제7수>에서 작가는 벗의 ‘집’을 ‘밧’과 ‘구름’에 묻혀 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밧’과 ‘구름’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제9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벗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어즈러운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